

다이아몬드 후지

다이아몬드 후지란 후지산 정상 너머로 태양이 뜨거나 지는 그 순간에만 볼 수 있는 경치를 말합니다. 후지산의 상징적인 실루엣 위로 태양 빛이 겹치며 아주 잠깐 동안 보석처럼 빛을 발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에 상관없이 수천 명의 열성적인 사진가들이 다이아몬드 후지를 카메라에 담으려 도전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계획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 질 녘의 다이아몬드

지축의 기울기에 따라 해가 뜨고 지는 방향과 각도가 매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후지를 볼 수 있는 각도도 달라지지만, 언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해 질 녘의 다이아몬드 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해 질 녘의 다이아몬드 후지를 볼 수 있는 시간대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오후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가 좋습니다. 후지산의 북동쪽에 위치한 야마나카코 호수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2월 하순까지의 기간에는 호안을 따라 매일 저녁 어디에서나 다이아몬드 후지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가이케신스이 공원과 히라노 호반, ‘교류 플라자 기라라’도 인기있는 감상 명소입니다. 호수면이 잔잔할 때는 후지산의 정상으로 태양이 지는 모습이 호수면에 반사되는 매우 귀중한 ‘더블 다이아몬드 후지’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의 보석

아침에 다이아몬드 후지를 보려면 해가 뜰 때 후지산의 서쪽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후지 5호 중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모토스코 호수 주변에는 안성맞춤인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1월 1일에는 모토스코 호수 남쪽의 류가타케 산 정상(해발 1,485m) 조금 앞에 있는 전망대가 절호의 명소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다이아몬드 후지를 오전 7시 40분 전후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는 꽤 춥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일출을 기다리려면 인내심도 필요합니다.